

## 2021년 4월 20일자 이상룡 선교사님 기도편지입니다.

광림교회 선교부 담당자님들께 드립니다.

어제 캐나다 위클리본부에서 보낸 재정 보고서와 같이 보내 주신 선교헌금 잘 받았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저의 한국 본부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깊은 감사를 교회와 담임목사님 그리고 선교부 담당자님들께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갈등 속에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귀임하라는 네팔 디렉터의 말에 따라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 가려고 하니 인도의 재확산 영향으로 말미암아 네팔은 다시 강경한 코로나 대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것 보다는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 기다리고 있지만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입니다.

그렇지만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팔의 부족 중 티벳어에 가까운 언어로서 L 언어가 있는데 신약이 많이 번역된 상황입니다. 저에게 근래 주어진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아시는 대로 번역도 힘들지만 번역된 내용을 컨설턴트로서 점검하는 것도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 가까이 씨름하고 있는데 겨우 1-3 장까지만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점검한 내용은 이미 현지 번역팀에게 넘어 갔고 저의 점검에 따른 여러 가지 대답을 받았습니다. 즉 1) 잘못 번역되었으니 수정하겠다 2)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으며 번역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식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두번째 점검이 또 보내집니다. 즉, 1)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에 감사 2) 수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3) 수정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 등이 주어진 뒤에 다시 두번째 답이 오면 그 답을 중심으로 해서 줌으로 혹은 대면 모임으로(현재는 줌) 만나 다시 하나씩 확인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1-3 장의 줌 미팅이 다음 주에 있을 계획입니다.

L 언어는 세르파와 같은 티벳 쪽 언어이기 때문에 본문 텍스트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이해를 할 수 있고 모든 번역에 영어의 back translation 이 붙어 있어 그 내용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어렵게 번역한 번역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동시에 예리하게

번역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하는 컨설턴트들의 고충도 있습니다.

늘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룡 드림